

GRACE 선교소식

2026년 3월 GMI-GKC 선교사 현황: 57개국 298명 (자체파송 79%)

모든 세대가 연합하여 땅끝까지!

GMI 총재 한기홍 목사

저는 이번 주간 선교적 모델교회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하며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은 “목회를 위한 선교, 선교를 위한 목회”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하여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튀르키예, 홍콩 등 여러 나라에서 48명의 목회자들이 참여하였습니다. 대부분 담임목회자들이며, 선교하는 교회들과 개척교회를 섬기는 젊은 목회자들도 함께하여 미래가 기대되는 귀한 모임이 되고 있습니다. 초청된 목회자들 중심의 모임이기에 인원은 많지 않지만, 선교와 목회를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매우 뜨겁습니다. 각 지역 교회들의 생생한 사역을 나누고, 선교하는 교회들의 깊이 있는 강의를 통해 큰 은혜와 감동,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포럼에서 “생명을 건 선교 목회”와 “남은 과업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강의와 집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선교 모토인 “선교는 기도, 전쟁, 순교”를 외치며 저 자신부터 다시 뜨거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임을 위해 선교부 교역자들과 연합 여전도회 이정수 권사님을 중심으로 많은 성도님들께서 정성껏 섬겨 주셨습니다. 그 섬김으로 모든 참석자들이 큰 감동과 축복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선교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들으며 다시 한번 깊이 깨닫습니다. 선교하는 교회로 부름받은 것은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또한 세계선교 마무리를 향한 비전을 더욱 새롭게 품게 됩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선교적 모델교회로 세워져 여러 교회가 배울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됩니다.

우리는 은혜교회가 선교적 모델교회로 세워져 여러 교회가 배울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됩니다.



한기홍 목사님 사역일정

- 미주연합 노회: 3/24-3/26
- 부목자 세미나 종강: 4/1
- MEGL 16기: 4/13-4/16
- 스웨덴 은혜교회 집회: 4/19-4/21

목사님의 사역 일정들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충만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서울에 세워진 GMI 은혜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주님의 지상명령을 이루는 세계선교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을 더욱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캄보디아

김영대 / 조정아 선교사

가정교회

현지 리더들을 중심으로 가정교회 개척사역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캄장신 10년근속

2010년부터 강의를 시작하여 2016년 전임교수로 10년 근속하였습니다.



캄장신 학생기도회

캄장신 신학생들은 매일 수업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교회 소 구매

가정교회에 소를 후원하여 자립을 돕습니다.

기도제목

1. 캄보디아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새소망 교회들이 부흥케 하옵소서.

2. 캄장신 신학생들이 성령충만하여 세계복음을 꿈꾸게 하옵소서.

3. 올네이션학교 모든 교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사명감을 갖고 가르치게 하시고, 학생들은 이 땅을 회복케 하는 주역이 되게 하소서.

4. 저희 부부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자녀(성훈, 성빈)가 학업과 믿음에 충실하여,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자 되게 하소서.

5. 동역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을 성령님께서 붙들어서 주옵소서.

I국

강OO / 이OO 선교사

10기 I국 티디

3월 3일부터 6일까지 10기 I국 티디가 아름답게 진행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은혜교회 EM 팀이 중심이 되어서 팀멤버로 섬겨 주셨습니다. 그런데 2월 28일 EM 팀이 I국 입국을 앞두고 중동에서 시작된 전쟁으로 모든 팀들이 터키에서 발이 묶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스피리츠 리더이신 김항신 목사님은 전화로 티디를 취소해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하셨고 그때부터 저희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I국에서 오는 EM 팀을 제외하고 나머지 팀들이 다른 비행편을 구해 모두 도착하여 티디를 잘 섬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이번 10기 티디는 특별히 이제 앞으로 현지화

를 위한 기초 작업을 하는 시험대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무료로 진행하던 캔디와 팀멤버들의 참가비를 적은 비용이지만 I국에서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티디 시작 전까지 80명 정도만 등록되어 역대 가장 적은 캔디가 오겠다고 예상했는데 실제 티디 때는 107명이 등록하여 기대에 미치는 숫자가 참가했습니다. 나중에 간증 시간에 20년간 사역하셨던 편집 목사님은 자신이 이제까지 사역하면서 한번도 배우지 못한 것들을 이번 티디에서 배워 간다고 은혜의 간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 저희들이 기대하기론 모든 부서 chef을 현지 팀멤버들이 담당하고 저희 GMI 팀은 Crew로 봉사함으로 티디를 현지화하는 것입니다.

N지역 9기 신학교

티디가 끝나고 3월 9일부터 9기 신학교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남학생 14명 그리고 여학생 2명으로 9기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특



별히 이번 기수에는 현지 사역자 사모님들도 참여시키고 여학생들도 앞으로 더 입학해서 같이 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 Y지역이 많은 핍박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라 Y지역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지 못했지만 부흥이 일어나는 P지역에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여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변화할 지 못하기에 가능하면 많은 학생들을 주님의 제자로 훈련하여 파송 하려고 합니다. 여학생들과 사모님들이 열심히 훈련해서 든든한 사역의 일꾼으로 거듭나길 기도해 주십시오.

M국 & T국

이OO / 권OO 선교사

지난 2월, 저희는 아신대학교(Acts University)와 북한 선교팀인 'PrayOne' 청년들과 함께 이 땅에 복음을 씨앗을 심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PrayOne 팀은 일부 탈북 청년들이 함께 참여하여 더욱 뜻깊은 사역이 되었습니다.

팀원이었던 J 자매는 그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머물러 있었으나, 사역 중 주님을 인격적으로 뜨겁게 만나며 방언의 은사를 체험했습니다. 무엇보다 단기 사역자로 헌신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함께한 P 자매와 K 자매 또한 단기 사역을 자원하였습니다. 다가올 가을, 이들이 다시금 T국 땅을 밟으며 복음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 받게 될 날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사역 기간 중 무엇보다 큰 은혜가 있었던 시간은 남북한 청년들과 GMI EM 팀, M국 청년 선교사들, 그리고 이곳 T국 현지 청년들이 한데 어울려서 드린 연합 예배였습니다. 각자의 사역



을 나누고 서로를 뜨겁게 축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대한 비전 앞에 다시금 자신을 드리는 헌신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번의 예배를 넘어, 앞으로 T국 땅에 일어날 놀라운 영적 부흥을 미리 맛보는 벅찬 감동의 현장이었습니다.

코리아 나잇 초청 잔치에는 많은 현지인이 참석하여 한국 문화를 체험하며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무엇보다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특히 I국 S 자매가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며, 이어진 지방 사역 중에도 한 형제님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 제목

다가오는 4월, 중동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MEGL 모임이 열립니다. 이 귀한 사역을 위해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팀 멤버들을 위해

모든 팀 멤버가 영육혼 간에 강건하여,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복된 통로가 되게 하소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 성령님께서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아래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소서.

2. 캔디데이트들을 위해

참석할 모든 캔디데이트가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치유를 경험하게 하소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3. 저희 교회 T국 지체들을 위해

캔디데이트로 참여할 O 아저씨, E 자매, B 자매가 모든 방해물 이기고 반드시 참여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팀 멤버로 섬길 U 형제, A 자매가 섬김의 자리를 통해 훈련되고 더욱 성장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탄자니아

송규영 / 오호숙 선교사

잔지바르는 지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 10:10)

이곳 잔지바르는 지난 2월 중순부터 1달간 이슬람의 라마단 금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둑질 당하여 멸망당할 저 무슬림 영혼들이, 생명을 내어주시는 참 선한목자이신 주님을 믿고 구원 받기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에버그린 학교

에버그린 새교정과 새학기를 맞아 아이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등교하고 있습니다. 새로 등록한 유치원 아이들의 눈빛에는 기대와 또 새로운 환경의 두려움이 함께 담겨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교실은 금새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새 학교로 이사한다는 말을 했을 때 아이들의 반응이 “선생님 화장실이 몇 개입니까?” 라고 질문했다는 말을 듣고 눈물이 찡했습니다. 이곳 건물주들이 학교용도로 세를 내주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그나마 렌트해 준 것이 고마워서 계속 사용하고 있었는데, 500여명의 아이들이 턱없이 부족한 화장실을 사용하면서 겪었을 불편함을 생각하니 미안한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새로 이사한 학교는 이전 학교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곳이라 다니던 학생들이 다른 학교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많은 아이들이 통학을 감수하면서 새 학교로 합류하여 아침에 집에서 이전보다 더 빨리 나와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김살 없이 기뻐하며 즐겁게 공부하는 모습들을 보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번에 이사하면서 누리는 은혜가 있는데, 중학교 과정이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유·초등학교 과정동안 우리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복음으로 세워졌는데, 졸업한 후에 중학교에 진학할 때는 다른 이슬람 중학교로 진학하면서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데, 이제 우리 중학교에서 연계하여 계속 공부하면서 복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열리게 된 것에 감사한 마음입니다.

유치원으로 시작한 아이들의 첫걸음을 함께하던 시간이 엇그제 같은데 이제 초등학교를 지나 중학교까지 열게 됨으로 더 많은 아이들을 섬기며 복음으로 가르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 학교를 건축하고 좋은 환경으로 이사하는 여정 가운데 묵묵히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해주신 동역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는 한명 한명의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며 지식뿐 아니라 사랑과 믿음으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발견하는 사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한가지 마음에 계속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공부하는 책걸상들이 너무 오래되어 많이 낡고 부서진 상태여서 아이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의 책상에 2~3명이 앉아 공부하고 있는데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새 것으로 교체하기 원합니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연초에 새학기를 맞아 급하게 이사하라 미처 완공하지 못했던 작업들이 남아 있어서 라마단 금식기간을 맞아 1달간 방학기간 동안 2층 실링보드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다음에 바닥 타라조 바니쉬 마감작업을 마칠 계획입니다.

에버그린 학교가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도록, 그리고 학교를 통해서 복음의 생명수가 흘러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아학교

노아학교 역시 새롭게 입학한 아이들과 함께 힘차게 출발하였습니다. 글을 몰랐던 아이들이 한 글자 한 글자 배우며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교과목 교육과 더불어 성경 이야기를 들려줄



때, 아이들은 누구보다도 진지한 표정으로 귀를 기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를 처음 듣는 아이들의 눈빛 속에서 하나님의 씨앗이 심겨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계속해서 무료교육과 급식을 통해 아이들의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볼 수 있음에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희들의 작은 사랑의 수고가 아이들의 미래를 바꾸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사역은 항상 이곳을 늘 기억하며 동역해 주시는 동역자님들의 기도와 사랑 덕분임을 믿으며 함께 걸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잔지바르 안디옥 성경대학

이번 11기 성경대학생들이 18명이 등록하여 2월 9일에 시작하였고, 정규 과목 공부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말씀과 좀 더 친밀해지기 위해 신약성경을 함께 통독하였는데 대부분 아직까지 단 한번도 성경 전체를 읽지 못했다가 이번에 통독을 하면서 은혜를 많이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생업을 마친 뒤에 피곤한 몸으로 공부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 때로는 피곤하고 지쳐 보이지만, 말씀 앞에서 누구보다 진지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러주셨다는 사명과 열정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읽고 나누며 때로는 눈물로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신실한 일꾼으로 세워가고 계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지금은 제1팀 “믿음의 기초” 수업을 공부하고 있으며, 환경은 넉넉하지 않지만 말씀을 향한 갈망 만큼은 뜨거운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닦아 올린 많은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승리하여 잔지바르와 동아프리카를 섬기는 귀한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함께해 주시는 동역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국

김OO 선교사

최근 1국 E 국제공항 인근에 이란의 지원을 받는 민병대가 드론 공격을 감행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부 드론은 요격되었지만 잔해가 공항 지역에 떨어지면서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하였고, 최근에도 K 지역을 향한 로켓과 드론 공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 이후 현지에서는 정전이 이전보다 더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1국에 있는 가족들과 연락이 되지 않아 많은 1국 사람들이 큰 염려 가운데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한 김 선교사님의 비자 갱신 과정이 진행 중에 있어, 현재 여권과 비자 카드가 선교사님께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기도 제목

1. 1국과 중동 지역에 하나님의 평화와 보호하

심이 임하도록

2.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는 1국과 중동 지역 사람들을 위해

3. 김OO 선교사님의 비자 갱신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4. 모든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사역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 중동 지역과 선교사님들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성은식 / 김해경 선교사

2025년 선교 보고

- 티바간 교회건축 시작(6월)
- 신축교회 첫 예배기념
- 안산 빛나교회 원로목사님 헌당 예배



2025년 후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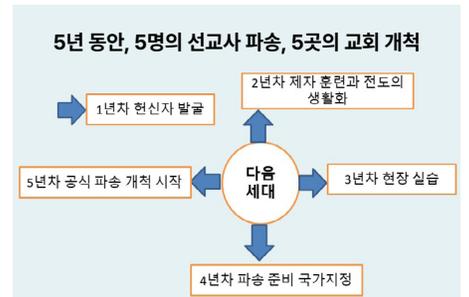
- 주일학교 예배
- 12명의 첫 세례식
- 청소년 Vision 캠프
- 8명의 제자 탄생
- 필리핀 GTD 1기 수료식

5.5.5 (three five) VISION

- 왜 5년입니까?
- 전원 신학교 졸업
- 5년은 준비와 훈련 그리고 열매의 시간입니다.

2026년 5.5.5 (three five) VISION

- 가정교회 개척 전도
- 가정방문 전도
- 어린이 전도
- 선교사 훈련 강의



국

김OO / 조OO 선교사

저희 부부는 주님의 은혜로 중국과 티벳에서 14년 반, 1국에서 10년 간 사역을 마치고 저는 7년 4개월, 아내는 5년간 1국에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2021년 코로나 기간에 학생비자로 막내 아들 둘과 함께 1국에 가서 중국과 1국과 필리핀 등의 아시아인 전도와 세계 각국의 사람들에게 각종 언어로 된 성경 배포와 전도 사역을 했으며,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예루살렘에서 가장 오래된 메시아닉 교회를 출석하면서 정기적인 기도모임을 월요일과 금요일 오전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모임을 교회에서 시작하면서 교회가 서서히 부흥하게 되어서 지금은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청년들과 젊은 부부들, 어린이들이 많아져서 교회 건축을 고민해야 할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모든 식당들이 문을 닫아서 노숙자들이 밥을 먹을 수가 없어서 저희 부부가 1달에 한 두 번씩 60명 분의 샌드위치와 과자와 사탕, 과일 등을 제공하거나 겨울에는 치킨 수프를 끓여서 주었습니다. 대부분의 노숙자들은 러시아나 동유럽에서 귀환하여 1국에 적응하지 못하고 중독이 된 알코올 중독자나 마약 환자들입니다. 특히 겨울에 제공한 치킨 수프는 그들에게 인기가 많아서 많은 노숙자들이 모여들어서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1국에서 믿음의 선배인 65세 이상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1국의 복음전파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임이 한 달에 한 번씩 있었는데, 이 모임을 섬길 일꾼이 없어서 70대와



60대 할머니들 두 분이 섬기는 상황이어서 저희 부부가 그분들을 도와 주방에서 섬김으로 모임이 더욱 활성화되어 모두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청년들은 모두 전쟁터에 나갔고, 성인들은 자기 생업과 가정에 충실하므로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없어서 저희 부부가 교회 마당에 흩어진 나뭇잎 청소를 비롯하여 교회를 관리하는 일도 하였고, 안식일에는 주방에서 섬기는 일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제자 양육이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에 연약한 형제들을 영적으로 돌보면서 제자 양육과 코칭 사역도 했으며, 나중에는 청년 사역자가 세워져서 전도와 양육을 힘쓰는 사역이 활성화되는 교회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역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닉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계획하시고 저희 부부가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의 헌신과 사역의 본을 보여 주도록 인도하신 아름다운 일들이었습니다.

지난 2월 8일 학생비자가 만기가 되어 비자연장이 되지 않아 저희 부부가 예루살렘을 떠날 때에는 마지막 버스를 타지 못해 터미널 근처의 공원에서 새벽 찬바람과 함께 밤을 지새웠으나 아침 첫차를 타고 떠날 수 있었습니다. 성도들과 이별의 아쉬움을 뒤로 하고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J지역을 떠나 홍해 바다가 있는 E국 국경까지 육로로 와서 시나이 반도를 거쳐 E국 K지역까지 이동하여 저희의 거처를 옮겼는데 여행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도와 주셔서 해결하기 어려웠던 문제들을 기적적으로 이겨내고 주님의 은혜로 안전하게 우리의 목적지인 K지역까지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E국 국경의 세관에서 우리가 가진 오래된 전자기기를 가지고 문제를 삼아서 빨리 비행기표를 사도록 E국 입국 심사원들로부터 강요를 받았는데, 그 일로 인해 우리의 계획과는 달리 전쟁이 나기 전에 중동을 떠나 한국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건강검진을 하고 약을 먹으면서 다시 신장 재검을 위하여 치료 중에 있으며, 향후 결과에 따라 좀 더 지켜보며 적합한 약을 조정하여 복용하려 합니다. 현재 검진 이후 새로 바뀐 약의 부작용으로 오른쪽이 아파 걷기가 불편



할 정도여서 의사와 상의하여 약을 다시 조정하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동안 1국에서의 사역과 비자를 위하여 해야만 했던 대학원 공부가 힘들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잘 마치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도 전쟁 중에 있는 1국의 성도들과 교회를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속히 전쟁이 끝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전하게 거하고, 1국에 복음이 더 많이 전파되어 교회가 성장하고 변화되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닉 교회와 성도들이 더 깨어서 복음전파와 제자양육에 힘쓰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쟁으로 인해 다치고 죽은 군인들과 트라우마에 빠진 병사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가 함께 하시며, 깨어진 심령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구원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서 그들이 변화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특히 정통 유대교인들의 삶과 랍비 중심의 신앙이 바뀌어서 그들이 다시 오실 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을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부부의 건강의 회복과 이후의 사역을 위해서 저의 중성지방이 천이 넘어 약을 복용하게 되었고 대상포진의 완치를 위해 취업을 준비중인 첫째 둘째 셋째와 1국에 두 아들이 건강하게 남은 한 학기 학업을 잘 마무리하고 군입대할 수 있도록 함께 두 손 모아주세요.

국

정00 / 전00 선교사

아시아 선교 컨퍼런스 (I국팀) 찬양

GMI 아시아 선교대회가 “회복 그리고 뜨거운 부흥으로” 라는 주제로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렸습니다.

주님이 그동안 19년차 사역 가운데 회복에 대한 갈망과 부흥의 뜨거운 열망 속에서 갈등하는 저희에게 귀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컨퍼런스 동안 은혜받는 내내 주님이 너희 부부가 헌신해주어서 I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해주어서 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해주어서 “고맙다”고 말씀하시면서 저희부부를 위로 해주시면서 마치 따뜻한 “봄빛”과 같은 은혜를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TD

올해에도 여전히 주님이 TD에 저희를 초대하셔서 사역자들과 청년들이 K지역에서 D지역까지 1,500 키로 먼거리를 20시간이 넘는 기차 여행을 통해 힘든 여행이지만 은혜를 받기 위해 두달전 부터 기차 티켓을 예매하고 은혜의 시간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중에 아들 세명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헌신하게 한 딘할다의 어머니 어심야 할다가 이번에 은혜의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딘할다의 어머니는 29살에 남편이 심장병으로 죽고 젊은 날에 과부가 되었는데도 가방 공장에서 일하면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한나처럼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아들 세명을 주님의 사역을 위해 사용해 줄 것을 기도하는 믿음의 어머니입니다.

딘할다의 어머니가 이번에 TD에 참가해서 은혜를 받고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책임질 것이라는 믿음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우라 암따 교회

하우라 암따 교회를 사역하는 쇼미란 디피카는 핍박이 심한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두 부부가 다 신학교를 나와서 목회를 열심히 하는 목회자입니다.

3년동안 임대한 건물에서 예배드리다가 이번에 성도의 숫자가 많아져서 정부 땅에다가 대

나무로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이 부부가 하나님 은혜로 정부 땅을 기부받아서 그 곳에서 예배 드리면 사람들이 함부로 못한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도 했는데 하나님이 그 곳에 임시로 교회를 짓게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넓은 땅은 아니지만 성도들이 돈을 모으고 자신들이 가진 모든 전 재산을 가지고 땅을 구입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카시 할다의 기쁜소식

아카시 할다는 7살 때에 저희가 복음을 전해서 양육한 저희들의 제자입니다. 그후에 I국에서 4년 과정의 신학 과정을 마치고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미국의 시카고에 있는 선교 단체에서 일을 하면서 앞으로 목회자가 되기위해서 준비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쁜 딸을 주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가족들이 주님의 은혜가운데 모든 것이 순조롭게 주님의 일을 하고 앞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호텔 경영 (면접)

닐몰고시 목사님은 해마다 교회 청년 중에서 호텔 경영학을 배우기를 원하는 청년들이 있으면 그 청년들을 위해서 면접관을 직접 교회로 초청해서 면접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면접에 합격한 청년들을 호텔 경영 학원인 정부 학원에 국비로 보내게 됩니다.

올해에도 여전히 청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 8명의 청년들을 취업 시켜서 뭄바이, 벵갈루루 등 여러 곳에 호텔에 취업을 하게 되어서 크리스천 일꾼으로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기도제목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탄자니아 송규영 / 오효숙 선교사

1. 라마단 금식 행위로 구원 받을수 있다고 믿고 열심을 내는 무지한 잔지바 이슬람 영혼들이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 받게 해 주세요
2. 에버그린 학교 아이들이 새로운 학교로 이사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에버그린, 노아학교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이 생명수처럼 흘러 나오는 요새와 산성같은 학교가 되게 해 주세요.
3. 제 11기 성경대학 학생들이 끝까지 훈련을 마치고 잔지바르와 동아프리카를 섬기는 귀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해 주세요.
4. 이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도록 기도해 주세요.
5. 요양원에 계신 어머님 영육에 강건함과, 자녀들이 말씀과 믿음에 굳게 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세요.
6. 우리 부부가 성령충만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해 주세요.



미국 정OO/ 전OO 선교사

1. 아시아 선교 대회 때에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면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2. TD 때에 청년들이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청년이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3. 하우라 암따 교회 쇼미란 디피카가 부부가 핍박 지역에서 사역하지만 날마다 승리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필리핀 성은식 / 김해경 선교사

1. 5, 5, 5 Vision 제자 훈련 프로그램들이 정착되게 하시고, 충성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2. 8명의 신학생(1학년 3명, 2학년 3명, 4학년 2명)들이 신학교를 무사히 졸업할 수 있도록 재정을 채워 주소서!
3. 교회의 식당건물과 리더십 훈련을 할 수 있는 소 강의실이 필요합니다. 속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4. 매주 전도를 하면서 개척교회의 장소를 정탐하고 있습니다. 순조로운 교회 개척을 허락 하소서!
5. 성은식, 김해경 선교사 성령충만과 영,육의 강건함과 자녀들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선교현황

57개국 298명 (자체파송 79%) (2026년 3월 기준)

러시아 및 CIS [권역담당: 장영호 장로]

러시아 센 삐페르부르크: 조경호(명숙), 노보시비르스크: 김경순, 이정식
사할린: 김성웅(지수), 이르크츠크: 한성우, 타타르스탄: 주선민(손소미아), 우술리스크: 장석희(약사나), 블라고베헨스크: 은성식(김경희), 아르메니아: 백승환(올가) 키르기스탄: 강형민(숙진)
타지스탄, 아프가니스탄: 최00 선교사 겸임

동북 아시아 [권역담당: 원용경 장로]

한국: 고은희, 김광문(이용숙), 김영진, 김에스터, 최광(나미연), 이정호(이은주), 정태호(정은주), 황영수(정경련)
중국: 김00(김00), 김00(김00), 이00(이00), 조00(윤00), 장00(김00)
대만: 이계석(연희), 김성수(이순희) 몽골: 몽크(바야라)
일본: 공영환(은자), 이종하(정혜겸), 송좌환(김정희), 박두희(이선희)

동남 아시아 [권역담당: 류형수 장로]

베트남: 강00(범00), 이00(장00), 강00(한00)
태국: 김인기(박춘희), 김경수(서경란), 임진섭(양윤희), 박경덕(신미선), 주진석(유경숙), 유옥임
라오스: 신00(00), 정00(김00), 천00(이00), 황00(전00), 제00(박00)
캄보디아: 김동규(이승향), 김광석(이영미), 김영대(조정아), 안진호(안지연), 손민지(이범신), 김길현(원경연), 박효순(이영희)
필리핀: 김인수(황소정), 성은식(김해경), 김적용(박영란), 박성용(미경), 미얀마: 한00(김00), 광00(엄00), 김00(이00), 류00(킨000), 강00(이00), 김00(00), 전00(김00)

서남 아시아 [권역담당: 최윤호 장로]

인도: 강00(이00), 한00(손00), 남00(마00), 남00, 정00(전00), 김00(이00) 네팔: 이00(00), 박00, 김00(오00), 오000, 김00
인도네시아: 기00, 김이(김00), 한지영(김성용), 김태환(주애니), 함춘환(김성혜) 파키스탄: 정00(이00), 이00(장00)
파푸아뉴기니: 남영미(김운용) 방글라데시: 광00(김00), 강00(현00)

아프리카 [권역담당: 백준승 장로]

케냐: 황광식(원지혜), 윤형로(미나) 남아공: 이은원(최정미)
시에라리온: 김성림(배현란) 말라위: 백영심 모리타니아: 박준용(한윤경)
탄자니아: 정부진(조재숙), 송규영(오효숙), 이병철(박미란), 정현우(정슬기), 조정석(남에스터), 오판석(정미라), 오종성(박영숙), 조병훈(허선옥)
모로코: 장원

중동 [권역담당: 백준승 장로]

이스라엘: 김00(아00), 장00(최00), 이00(00), 최00(아00), 강00(ROO), 김00(조00), 지00(유00), Chin00, 양00(00), 이라크: 김00, 김00(00)
요르단: 고00(00), 최00(00) 이집트: 김00, 김00(양00) 레바논: 장00(서00), 김00(박00) 팔레스타인: 정태훈(정소영) 중동: 김000(00)

중남미&포어언어 [권역담당: 장준영 장로]

아르헨티나: 스텔라김 겸임 칠레: 스텔라김 겸임
쿠바: 안희진(구스타보), 전재덕(이재순) 파나마: 김재한(그레이스)겸임
베네주엘라: 김도현(강미애), 김재한(그레이스) 겸임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최용준(재숙) 겸임 브라질: 한인승(선희), 하선(남성만)겸임 콜롬비아: 박재현(정은실), 김도현(강미애) 겸임
멕시코: 이종식, 김봉년(김미란), 송두선(양정연), 임한근(이길선), 이준성(석화) 파라과이: 강성현(이경희), 김돈수(미정) 모잠비크: 하선(남성만)겸임
페루: 최갑순(정미희), 박윤수(박병순)

유럽 [권역담당: 권혁석 장로]

독일: Vitali Gerner(Musa Galiew), 문성은(그레이스), Chris Schell(임영임) 프랑스: 송석배(김은영), 송준호(정희진) 불가리아: 박정일(인실)
튀르키예: 김00(00), 공00(박00), 최00(이00), 김00(00), 전00, 이에레미야(권은혜) 우크라이나: 김교역(주순) 그리스: 신동택(신미희)
보스니아: 신운영

북미주 [권역담당: 이상홍 장로]

미국: 양태철(현정), 강충원(정희), 박명숙, 구본철(구영숙), 최미영, 황인주(정미), 정화미, 김형주(민지), 권종승, 박태수, 김정환

선교부 광고

1. 단기 선교 일정과 모집 안내

- 네팔 코이노니아 인카운터(3/27-4/4)
S/L: 권상욱 목사
리더(문의): 조제이슨 장로 (213-905-0636)
총무: 최성욱
- 시베리아 티디 22기 (4/6-4/9)
S/L: 한성우 선교사
문의: 박혜숙 전도사 (714-388-2896)
- 니카라과 인카운터 1기 (4/6-4/12)
디렉터: 추금환 집사
문의: 문기훈 목사 (714-351-7212)
TM: 3/23(월), 205B, 7PM
- MEGL #16 Türkiye (4/14-4/17)
S/L: 한기홍 목사
렉터: 김정철 집사
문의: 안성민 집사 (703-593-5949)

- 아랍 인카운터 1기 및 개척 선교 (요르단) (4/19-4/28)
S/L: 안영식 목사
디렉터: 백준승 장로
팀장: 이민희 피택장로 (213-268-8558)
- 파라과이 상담국 선교 (4/21-4/24)
S/L: 김영호, 김정원 목사
렉터: 김준규 장로 (714-336-8320)
- Armenia ARTD #19 (4/19-4/28)
S/L: 백승환 선교사
렉터: 임경무 집사
총무: 성재승 집사
- 인도네시아 인카운터 1기 & 개척선교 (4/23-5/3)
S/L: 설성훈 목사
문의: 이병훈 집사 (714-353-1208)
- 동유럽 Romania Local Church G/E & VBS (6/2-6/9)
디렉터: 권혁석 장로
팀장: Steve 어 안수집사 (714-318-8549)

- 칠레 AFA #1 Next Generation
S/L: 안영식 목사
렉터: 장준영 장로
문의: 차윤석 집사 (714-334-2340)
T/M: 4/16(목), 7PM 웨딩채플
- 2. 의료선교국 주일 상담
매주 주일 10:00- 11:15AM
문의: 의료선교국
- 3. 이스라엘 회복과 부흥 및 쥬빌리 구국기도회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장소: WPC
문의: 현민정 목사 (714-732-2636)
- 4. 선교부 디보션 일정
매월 2, 4째주 주일 9:00 AM
- 5. 온라인 선교지 소식
WWW.YOUTUBE.COM/
@GMIMMISSION
WWW.FACEBOOK.COM/
GMIMMISSION

